

S상용건설

서울시 중구 회현동 주상복합현장



● 공사명 : 회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회현동 주상복합 신축현장

● 발주자 : (주)해창

● 감리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휴먼텍코리아

● 설계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공사기간 : 2007. 1.26 ~ 2010. 6.30(41개월)

● 공사규모 : 2개동, 지하7층~지상33층,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6,876M²(2,080평) 건폐율 55.82% 건축면적 2,957M²(894평)

용적률 980.26% 연면적 79,978M²(24,193평) 주차대수 658대

53, 59, 61, 65 등 6개평형 총236세대.

서울을 대표하는 명산 남산의 관문 남산3호 터널 입구에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서울을 대변하는 건축물로 태어나고자 마무리가 한창인 건축현장이 있다.

중구 회현동 주상복합현장은 쌍용건설이 지난 2007년 착공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하고 있는 현장으로 서울도심을 대변하는 기념비적 건축물

즉, LAND MARK로 자리 잡게 하자 최범종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21명의 쌍용인과 40여 협력사가 하나가 되어 2010년 6월 준공을 위해 오늘도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

쌍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중구 회현동 주상복합현장은 그간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현장이다. 박구준 부회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지난 6월, 최범종 현장소장을 비롯한 쌍용인들은 준공일자 준수는 물론 완벽시공을 위해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다.

건설안전기술사이며, 건축시공기술사인 최범종 소장은 매일 180명 이상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는 현장이기에 안전관리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며 특히, 도심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지역적 특수상황 관계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제 1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안전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최근의 건설현장은 고충화, 대형화는 물론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사 수행으로 도심권의 주변상황 및 관련법규는 물론 각종 민원 발생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쌍용건설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함은 물론 인간존중의 기업이념을 실천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삶의 터전을 창조하기 위해 전 조직 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자율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지속적 재해예방을 통해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건설현장은 여러 복합적인 공정의 동시작업과 고정된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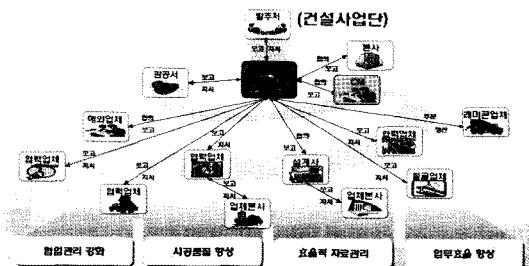


• 현장을 방문한 박구준 부회장에게 도심지공사의 특별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범종 현장소장.

인력 투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장 만들기를 위해 정리정돈의 생활화와 안전기능의 습관화를 매일 안전 조회시 지속적으로 반복 강조한 결과 작업 중·후의 작업부산물이 작업장 주변에 방치되는 것의 사전 제거가 가능했으며, 또한 매주 1회 정리정돈의 날 지정으로 나의 작업장은 내가 스스로 정리정돈 한다는 자율의식도 생겨났다고 설명한다.

S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운영

대형건설사들은 공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건설사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기에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ERP시스템을 구축해 전 현장이



동일한 규격과 기준에 의한 공사업무를 진행하고 있기에

- INTERNET을 통한 위험성평가서 등록 관리
- 일일공정회의 및 주간공정회의 활용
- 각종 문서관리 저장 및 활용
- 근로자 출력 관리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 ERP 시스템에 추가해 현장 여건에 맞는 PMIS 시스템을 적용, 발주처와 감리자, 설계자, 시공업체가 다양한 참여 주체가 되어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정확한 의견교환과 업무공조는 물론 체계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도심자공사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PMIS를 활용한 Lean 건설기법을 도입하여 낭비요소의 제거, 적기 재차입(Just in time) 및 야적대기 사이클시간의 최소화 하며, 공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대기시간 및 재시공을 최소화시켜, 사업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S 신공법 및 가시설물 도입(SPS)

Strut as Permanent System 공법

도심공사는 인접구조물에 근접한 대규모, 대심도 굴착공사로 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법개발이 필요하였기에 기존 재래식 베림대(STRUT) 공법은 문제가 예상되어 토공작업시 지하층 철골부재를 이용한 굴토공사중 흙막이 지지체로 사용하고, 굴토공사후 영구 구조물로 사용하는 SPS 공법을 적용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 인접구조물 근접시공 및 동시 굴착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확보

- 흙막이 지지체 해체 공정 생략으로 주변 변위 최소화
- 지상, 지하 동시시공에 의한 공기단축
- 슬래브 선 타설로 작업공간 조기확보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지하층 철골부재 흙막이 지지체에서 영구구조물 전환

S 첨단 공법의 과감한 도입과 적용으로 모범적 시범 현장

SWC(Safety Working Cage)

- 최근의 건설공사가 골조작업이 진행되면서 마감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안전의 중요성이 위협받고 있고, 또한 도심건축물의 경우 고층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해물질의 비산 및 낙학에 의한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어 외부 마감품질의 시공점검 난점과 각종 가시설물로 인한 가설비용 증가의 여지가 있어 공기단축 및 품질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SWC 가설장비를 도입하였다.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건설안전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 일본어능력 1급
- 건설사업전문가(PCM)
- APEC Engineer
- 건설기술정보 인터넷 개발 T/F 부장
- 건설사업관리(CM) 부장
- 구리시 인창동 쌍용 썬스 타워 오피스텔 현장소장
- 삼양동 DMC 첨단 산업센터 현장소장

S 총예전설



정자 그 위공을 드리니고 있는 성종 충무 이현동 주상복합현장을 배경으로
최법동 한강소장은 바듯한 성종인들과 박수를 부화장